

조선전기 면직물 발달에 관한 연구

조 효 숙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tton Fabrics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Hyo-Sook Cho

Dept. of Clothing,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won Univ. Associate Prof.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cotton Early Chosun Period, by examining the historical literary sources : such as production of cotton, various uses of cotton, trade with other countri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tton fabrics during this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which can be described as a settling period, lasted 27 years from A.D.1392 to 1418. In this stage cotton fabrics were mainly produced in Kyungsang-Do, and were just about to be used as fabrics for popular clothing. The second stage which can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al period, lasted 50 years from A.D.1418 to 1468. In this stage cotton fabrics were mainly produced in the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which are Kyungsang-Do, Choongcheng-Do, and Jeunla-Do. And cotton fabrics were used not only by the common people but also by the royal family. The third stage, that is the last one was an extensive period and lasted from A.D.1469 to 1592. In this stage as the demand for cotton fabrics greatly increased, the production from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fell in short of the supply needed. Therefore the production was extended to the northwestern parts. In addition cotton fabrics finally came to be used as money to value the goods.

Key Word : Cotton Fabrics(목면), settling period(정착기), developmental period(발전기), extensive period(확장기)

I. 서론

朝鮮時代 이전의 직물산업은 크게 견직업과 마직업으로 양분되어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견직물은 대부분이 상류층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며,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제직되었다는 모직물의 일종인 罽나 면직물의 일종인 白疊布도 외국에 보내는 공물이나 특수층을 위하여 극히 소량이 직조되었을 뿐,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추운 겨울에도 麻·苧·葛섬유와 같은 인피섬유에 의지해야만 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서민들의 의생활 속에 고려말기 문익점에 의해 솜과 무명의 원료가 되는 면종자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 의생활의 일대 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면업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발전 성장하여 오랜 진통을 이어 온 마직업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고, 견직업과 함께 조선시대 직물산업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면직물이 전개되고 발전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성장기로 면종자 도입부터 16세기까지인데 빠른속도로 정착되고 성장 발전하는 기간이며, 대외교역에서 대표적인 수출품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면업을 경제 수단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단지 국가 세입의 보충수단으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과중한 조세에 시달리는 농민은 면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양적 증가만을 피하게 된 결과 면직물은 점차 추포화 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단계는 정체기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까지로 면직물이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있는 시기이다. 당시의 면직물은 조세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場市가 발달함에 따라 보편적인 '농민의료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면직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면

직물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면직물 생산방식을 조금씩 개량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면직물 생산기술 및 품질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면업은 조선전기의 생산체제를 답습하는 정체기에 놓이게 된다. 3단계는 쇠퇴기로 19세기 후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면포가 싼값에 유입되고 그동안 발전되었던 재래 면직물은 일본이나 서양의 기계직물에 밀려 면업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¹⁾

본 연구의 범위는 위의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면직물이 정착되고 성장, 발전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며, 당시의 출토유물에서 면직물의 사용 예를 조사하고, 밀도와 직물나비 등의 실물고찰을 병행한다.

면직물에 관한 연구는 민길자의 「면직물 제직 연대에 관한 고찰」, 권병탁의 「무명문화의 도입과 정착」, 권태역의 「한국 근대 면업사 연구」, 권병탁의 「이조말기의 농촌수공업 연구」와 같이 면직물의 도입시기 혹은 조선 말기 면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조선전기 면업에 관한 논문으로는 고승제의 「이조 면업의 전개과정」을 들 수 있으나 이 논문은 경제사 관점에서 조선시대 면업의 생산 실태를 고찰한 연구로서 실제로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면직물을 사용하였고 의복을 만들어 입었느냐 하는 복식사적 관점에서의 면직물의 생산과 사용 실태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조선시대 의복 재료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면직물에 관하여, 면직물이 도입된 후 짧은 기간동안에 당시의 중요한 기간 산업의 하나인 면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찰하고, 면직물과 관련된 국가정책, 면직물의 생산 실태, 면직물을 복식재료나 침구용으로 사용한 실태, 대외교역에서 중요한 위치였던 면직물의 수입 수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조선전기에 서민 의생활의 혁명

1) 조효숙, "방직업", 『한국사』 24권, 국사편찬위원회, 1994, p.259.

정규용, "목화 시험연구 80년", 농업진흥청, 1988, p.15.

을 이루어낸 면직물이 정착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국가정책

1364년 문익점에 의해 도입된 면종자는 그의 장인 鄭天益과의 협력으로 재배에 성공하였고 胡僧弘願의 도움으로 棉布의 직조술을 익혀 婢女로 하여금 한필을 짜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무명이 태동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시작된 면업은 그 지방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당시는 정치·사회적 혼란기로서 국가로 부터 어떠한 권장정책의 시행도 없었기 때문에 면직물의 생산은 극히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려 禔王 13년(1387) 2월에 명과의 교역에서 고려의 말을 수출하는 대가로 棉布와 段자를 받았는데²⁾ 고려말 1필에 면포 8필과 주단 2필씩으로 교환되었다. 이때는 면종자가 도입된지 20여 년이 경과한 시기로, 아직까지 면직물은 수출품목이 아니었고 비단류와 같이 명으로부터 수입품목이었다. 더우기 恭讓王 3년(1391)에 中郎將 房士良이 올린 시무 11조 가운데 제 2조³⁾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산물은 紬나 苧麻布이므로 이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였으니 목면은 아직 紬·苧·麻 처럼 우리 토산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국가에서는 견직물에 비하여 생산이 용이하고 실용적인 면직물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가에서는 목면종자를 도입한 문익점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여 파격적으로 우대하였다. 문익점이 죽은 이

듬해인 太祖 7년(1399)에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參知議政府事 藝文官提學 同知春秋館事 江城君으로 贈織하였으며,⁴⁾ 2년 후 太宗 원년(1401)에는 그의 아들 中庸에게 正三品인 司憲監察을 수여하였다.⁵⁾ 또한 동왕 10년(1410)에는 司諫院이 올린 시무 8조 중에 '위로는 卿士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上衣下裳의 의료로 쓰이는 무명을 보급한 문익점의 공로를 다시금 높게 평가하여 사당을 세우고 祭田을 지급하자'⁶⁾는 건의가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문익점의 공로에 대한 표창은 그 당시 비로소 목면이 널리 재배되어 국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아울러 면업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태종대의 적극적인 목면 권장정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서 태종 9년(1409)에 경상도 敬差官 韓雍이 올린 조목을 들 수 있다.⁷⁾ 그는 棉布田에 대하여 쌀로 납세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주청하였으며, 태종은 그와 같은 면직물 생산에 대한 특혜조치를 허락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면직물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이 촉진제 역할을 하여 면화 재배는 경상도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정착되었고, 태종 10년 사간원이 올린 바와 같이 위로는 귀족이나 사족에서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복식의 재료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世宗대에는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와 충청도의 삼남지방에 확산되었으며, 계속되는 면업의 확산으로 삼남지방 일대에서 면포는 기존의 전통 의료인 마포의 자리를 빼앗고 보편적인 의료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세종대부터는 삼남지방에서 토착화에 성공한 면화의 재배를 기후풍토가 잘 맞지 않는 서북지방에까지 전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때 북방 지

2) <高麗史>, 권 133, 열전 49, 신우 13년 2월.

3) <高麗史節要>, 권 35, 공양왕 3년 3월.

4) <太祖實錄>, 권 14, 태조 7년 6월 정사.

5) <太宗實錄>, 권 1, 태종 원년 윤 3월 경인.

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갑진.

7)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12월 임자.

역은 심각한 흉년을 맞아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집단 이동을 방지하고 안집시키기 위하여 세종은 농업을 권장하였고, 특히 전작이 가능한 목면산업을 부업으로 권장하였다. 그 예로 세종 17년(1435) 함길도는 기후가 남방과 달라 畝田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하삼도에서 면종자를 거두어 함길도에 면화를 키우도록 하였⁸⁾ 다음 해 역시 함길도 감사에게 목면 종자를 보내어 재배법을 시달하고 먼저 관가에서 시범을 보여 일반 농민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북방 지역의 면화 재배를 시도하였다.⁹⁾ 그러나 기후가 한랭한 북방지역에서 면업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동왕 28년(1446)에는 평안·함길도 관찰사에게 재차 면화 경작을 장려하고 평안·함길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하삼도인으로 하여금 면화를 경작하게 하였으며 차츰 원주민들에게도 보급시키도록 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¹⁰⁾

이러한 노력은 후대의 왕들도 계속하였는데 世祖대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목면과 상마를 백성에게 권하기를 명하였고,¹¹⁾ 成宗대에도 서북도에 면화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永安·平安·黃海三道에 목면 종자를 分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힘써 경작토록함으로¹²⁾ 북방지역의 면업 보급을 위해 일관된 국가 정책을 펴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초기의 역대 왕들은 지속적인 권면정책을 시행하였다.

III. 생산실태

조선 전기의 면직물 생산방식은 견직물이 관 주

도에 의한 관장제 수공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농촌의 가내수공업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태종대까지 면직물의 생산은 국가의 장려 속에서 농민의 자체수요와 공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종대부터는 면직물을 자급자족의 목적만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었으며 극히 소량이지만 상품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세종대는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軍役 또는 職役 부담자가 번상입역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하는 대역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세종 21년(1439) 11월 安純의 상소에 따르면 경외의 都府外, 基人, 補充軍, 早隸, 選上奴子, 船軍에 이르기까지 대역이 일반화되고 1개월간의 대역가가 면포 3필, 일년에 30필에 이르러 役丁이 토지와 우마를 팔고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¹³⁾ 즉, 그들 중 면직물을 자체 생산하여 충당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다수는 면직물을 생산할 수 없었고 생산자들에게 구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면포 생산자를 자체 수요의 목적을 떠나 상품생산자로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15세기 후반에는 면직물이 단순한 상품이 기보다는 화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楮貨와 鑄貨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고 현물화폐제로 되돌아가 면포는 상품교환에 쓰이는 유통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6년에는 正布 혹은 목면의 물건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을 정하였고, 동왕 27년에는 모든 매매에 있어 반드시 면포로서 정가를 삼도록 하였으며, 29년에는 노비의 신공을 면포로 받았으며, 종래에 저화로 받던 수철장과 주철장의 匠稅도 면포와 쌀로 바뀌게 되

8) 「세종실록」, 권 68, 세종 17년 9월 경진.

9) 「세종실록」, 권 68, 세종 18년 1월 임신.

10) 「세종실록」 권 113, 세종 28년 8월, 임신.

11) 「세조실록」 권 9, 세조 3년 1월 기축.

12) 「성종실록」 권 54, 성종 6년, 4월 기사.

13) 「세종실록」 권 87, 세종 21년 11월 11일.

었다.¹⁴⁾ 당시 면포의 가치를 쌀로 환산하면 목면 1필 값은 쌀 10말에 해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조선전기 면직물의 생산이 면종자 도입 후 즉시 활성화 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왕권의 확립등 정치적 문제가 산재하였으므로 산업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태종대까지는 면직물은 마직물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지 않았고,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대표적인 수출품목이 되지 못하였다. 태종 원년 貢賦詳定都監이 貢賦의 수를 올린 啓에 의하면, 田稅로 납부되는 비율이 五升布田이 82,513결이며, 백저포전이 160결, 擘布田은 1,265결인데 비하여 湄布田은 37결로 배정되었다.¹⁶⁾ 이것은 당시에 마직물에 비하여 매우 적은 면직물 생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정종·태종 3대 동안은 명이나 일본과의 대외교역에서 면주와 저마포가 주로 수출되었고 면직물은 수출품목에 오르지 못하였다. 태조대에 여진과의 교역에서도 말을 수입하는 대가로 紬·苧·麻·綿을 지불한 기록은 있으나 면직물의 수량은 매우 적었으며¹⁷⁾ 태종대에 명과의 교역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말을 수출하는 대가로 여전히 많은 양의 면직물이 수입되었다.¹⁸⁾

그러나 세종의 적극적인 면업 활성화 정책으로 세종 이후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면직물 생산은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되어 면업은 염업·광업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기간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면직물 생산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남쪽지방에서는 물론 북방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대외교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를 굳혔고 화폐의 대용으로도까지 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었다.

세종 7년(1425)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의

하면 경상도의 109개 군현 중에 88곳에서 밭을 경작하는 세금으로 면직물을 납부하였고, 83곳에서 원료가 되는 목화를 납부하였을 정도로 세종대에 접어들어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화와 면직물이 생산되었다. 그 후 7년 뒤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土宜木棉’(목화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목면의 산지 명은 경상도 이외에 충청도·전라도까지 포괄하고있어 면직물이 경상도 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때에는 (표 1)과 같이 면화 시대이던 경상도에서는 66지역의 府·牧·郡·縣 중 13지역이, 충청도에서는 55지역 중 5지역이 목면을 토산물로 기록한 데 반하여, 전라도는 총 56지역의 府·牧·郡·縣 중 27지역이나 설정되어 경상도 보다 기후·지리조건이 더 적합한 호남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면화재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면직물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삼남지방 일대에서 기존의 전통 衣料인 마직물의 자리를 빼앗고 보편적인 의료로 정착되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종 원년 (1469) 6월에 공조판서인 梁誠之는 각지방의 토산을 정부에 납부하는 공물을 지역별로 배정함에 있어서 하삼도에서는 면포, 평안·황해도에서는 綿紬, 함길·강원도에서는 常布, 충청도의 임천·한산에서는 生苧를 납부하게 하자고 하였다.¹⁹⁾ 이처럼 경상·전라·충청도 등지에서 면직물을 대표적인 공물 대상 물자로 책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종 원년 무렵에는 면포가 남한 일대의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의료로 정착되었음을 알리는 지표로 볼 수 있다.²⁰⁾

이러한 결과 16세기에 저술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면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14) 「세종실록」권 25, 세종 6년 8월 기유, 권 110 세종 27년 10월 11일, 권 115, 세종 29년 정월 10일

15) 「세종실록」권 21 세종 5년 9월 갑오.

16) 「태종실록」권1, 태종 원년 5월, 신유.

17) 「태조실록」권 4, 태조 2년 12월 정해, 권 10, 태조 5년 10월 임인, 권 11, 태조 6년 1월 정유.

18) 「태종실록」권2, 태종 원년 10월 무오, 권3, 태종 2년 5월 계미, 권20, 태종10년 10월 임인, 권34, 태종 17년 8월 병술.

19) 「예종실록」권6, 예종 원년 6월 신사.

20) 고승제, 앞의책, p.88

마직업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지방에서는 생산지역이 오히려 줄고, 면화 재배가 어려운 북부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당시에 평안도에서는 42개 군현 가운데 39개 군현들이, 함경도에서는 22개 군현 모두에서, 그리고 황해도에서는 24개 군현들 가운데 14개 군현에서 마포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이를 잘 설명한다.(표 1)

<표 1> 조선 전기 직물 및 원료 생산 실태 <단위:군현>

지역 구분	생산품목		모시	삼베	목면	목화	뽕나무	비단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경기도	세종실록지리지	-	36	-	-	36	-	-
	동국여지승람	-	9	2	-	36	9	-
충청도	세종실록지리지	11	8	2	3	21	-	-
	동국여지승람	13	6	-	-	22	1	-
경상도	세종실록지리지	3	31	13	2	25	0	-
	동국여지승람	4	9	1	3	3	1	-
전라도	세종실록지리지	22	50	27	31	41	-	-
	동국여지승람	18	2	-	-	33	-	-
황해도	세종실록지리지	2	11	-	-	17	-	-
	동국여지승람	1	14	-	-	2	15	-
강원도	세종실록지리지	2	24	-	-	24	-	-
	동국여지승람	3	7	-	3	6	-	-
평안도	세종실록지리지	-	42	-	-	42	-	-
	동국여지승람	-	39	3	-	7	40	-
함길도	세종실록지리지	-	15	-	-	8	-	-
	동국여지승람	-	22	-	-	1	14	-

더욱이 세종은 면직물이 남한지방에서 토착화에 성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면화재배에 기후풍토가 잘 맞지 않는 서북지방에까지 전파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하삼도에서 면 종자를 거두어 함길도에 면화를 키우도록 하였고 재배법을 시달하고 먼저 관가에서 시범을 보여 일반 농민에게 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북방 지역의 목면 재배를 시도하였다.²¹⁾ 그러나

기후가 한랭한 북방지역에서 면업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종대에는 서북지역에서 면직물이 생산된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면업의 북방 보급 노력은 후대의 왕들도 계속하였는데 세종대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목면과 상마를 백성에게 권하기를 명하였고,²²⁾ 성종 6년(1475)에는 서북도에서 목면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永安, 平安, 蕪海 三道에 목면 종자를 分送하여 백성이 경작토록 하는 등²³⁾ 북방지역의 목면 보급을 위해 일관된 국가 정책을 폈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종 25년(1530)에 저술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면직물의 특산지로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가 기록되었다. 이처럼 면직물 생산이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까지 확대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더욱이 선조 28년 임진왜란을 겪고 있던 때에 황해, 평안, 함경도 巡察使에게 '군량에 보충할 물자를 징수하는 농수산물 중 면포와 미곡의 징수 비율을 책정하여 보고하라'는 서신을 보낸 데에서 면직물이 이제 서북지역에서도 징수의 대상이 될 정도로 생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수공업으로 발전한 면업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조선전기의 대표적 기간산업의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수공업으로서 경영주체인 농촌경제를 호전시키는 역할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면직물을 조세의 징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록 면직물의 생산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따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면직물 생산은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촉진된 것이 아니라 국가세입의 보충수단으로서 촉진되었던 것이다.²⁴⁾ 그리하여 과

21) 「세종실록」, 권 68, 세종 18년 1월 임신.

22) 「세조실록」, 권 9, 세조 3년 1월 기축.

23) 「성종실록」, 권 54, 성종 6년, 4월 기사.

24) 고승제, 앞의책, p.88-90

중한 조세에 시달린 농민들은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보다는 조세 납입을 위한 양적 충당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10년에 각도의 공물로 받는 면포가 모두 조잡하여 누구도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다고 기록한 점²⁵⁾으로 미루어 면직물의 추포화 현상의 시작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면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18세기에 이르러 면포가 상품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농촌부업으로 정착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면직물의 질적향상에 많은 관심이 대두될 때까지 면직물의 생산은 양적 증가에는 성공하였으나 품질 향상은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IV. 면직물의 사용실태

조선 전기 면직물 사용의 실패로서 태종 10년에 문익점이 공덕을 기리면서 “위로는 경사에서 아래로는 서인에 이르기까지 上衣下裳의 의료로 면포 보급 공덕을 높이 기리어...”²⁶⁾라고 한 것을 들 수 있거니와 이는 당시 의생활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태종대까지는 목면이 실제로 상류층의 의료로 쓰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여진의 사신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목면 수백 필과 함께 목면 직령, 목면 접의와 같이 면포로 만든 의복들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당시 목면 의복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태종 16년(1416)에는 돛자리의 선을 두를 때 잠실의 공력이 매우 어려우니 이제부터 목

면으로 대신하고, 各殿의 자리에도 紫色의 紬를 쓰지 말고 鴨頭綠색의 7승 목면을 사용하며 遮日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의 자리는 청색 正五升布를 사용하라고 하였다.²⁸⁾ 동왕 18년(1418)에는 혼인하는 사람의 금침을 토산인 紬와 棉布로 하라는 事宜를 올리기도 하였다.²⁹⁾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류층에서는 의복보다 침구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목면을 사용하였고, 서민들은 이미 목면을 의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대에는 면직물이 상류층 의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종 17년 王女下嫁儀 의절에 공주와 사위가 盛服하는데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왕자의 혼례시에도 대군과 부인이 성복하는데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만든다³⁰⁾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몰라도 왕실에서도 면직물 의복을 입고자하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하겠다. 세종 27년(1445)에는 여섯 명의 승지에게 압두록 棉布와 紅紬를 1필씩 하사하여 중국 모양의 의복을 만들어 입도록 하였고,³¹⁾ 다음해에는 集賢殿으로 하여금 服色詳定條件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제 1조에 工·商·賤·隸·鄉·吏는 8승 이하의 木棉·綿紬·苧布를 쓰도록 명시한 점³²⁾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 서민들에게 목면이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8승 이상의 고운 목면도 많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端宗대에는 明皇帝의 칙서를 가지고 온 중국사신들과 그 당시 최상의 권위를 가졌던 수양대군에게

25) 「태종실록」 권22, 태종 10년 8월 갑자.

26) 앞주 6)

27)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5월 신해·기축·임오.

28) 「태종실록」 권18, 태종16년 5월 임진.

29) 「태종실록」 권 31, 태종 18년 5월 임자.

30) 「세종실록」 권 67, 세종 17년 1월 을미, 세종 17년, 2월 신미.

31) 「세종실록」 권 107, 세종 27년 3월 병자.

32) 「세종실록」 권 112, 세종 28년 5월 임진.

도 면포로 만든 각종 袍類를 하사하였다.³³⁾ 따라서 면직물이 도입된 지 1세기만에 면직물은 왕족으로부터 천예에 이르기까지 이미 보편적인 의료로서 자리잡았다.

현존하는 임진왜란 이전의 유물 중에도 (표 1)과 같이 목면 의복이 다수 출토되었다. 1400년 후반기에서 1500년대에 걸쳐 생존하였던 분들의 분묘에서는 견직물 의복이 무명보다 많이 출토되었으나 임진왜란시기로 접근할수록 목면 의복이 많다. 이계윤(1431-1489) 분묘에서 수거된 복식류는 총 11점 중에 목면은 한 점도 없었으며³⁴⁾ 홍계강(1450년 경?)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도 총 31점 중 목면은 치마 1벌의 안감과 버선 2벌이었다.³⁵⁾ 정은(1481-1538)의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모두 보공용으로만 수습된 것이 특징인데, 총 24점의 보공 의복 중에는 운문단, 당초연화문사, 명주, 등의 견직물과 무명, 모시, 삼베 등이 고풍 들어있었으며 그중 목면 의복은 단령, 답호, 저고리 각 1점씩과 바지류 2점을 합하여 총 5점이 된다.³⁶⁾ 생존 연대가 조금 후기인 정응두(1508-1572)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모두 60점 중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38점만 조사대상이었는데 모두 유문단이나 문사, 면주 등의 견직물로 만든 의복이었다. 단 홍계강의 저고리중 1만은 걸감은 면주인데 안감은 무명이었다.³⁷⁾ 신인식(1519-1582)의 분묘에서 수거된 복식류는 총 7점 중에 단령, 액주음, 직령 등의 3점이 목면이다.

또한, 신인식의 동생 여관(1530-1580)의 분묘에서 대부분 면주의복이 출토되었는데 총 28점 중

목면의복은 개당고 1벌이었다.³⁸⁾

그런데 비슷한 시기의 영주 출토 김흥조(1461-1528)분묘의 출토품은 총 53점인데 그 중에 유문단은 1점 뿐이며, 단령 1점과 직령 2점, 천릭1점, 바지류 6점 등 모두 10점이 목면으로 만들어져 대조적이었다.³⁹⁾ 이것은 묘주의 직위나 경제력등 사회적 측면과 거주지역 가치관 등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목면의 사용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임란 중에 전사한 김함(1568~1598)의 출토복식과⁴⁰⁾ 임란직 후에 사망한 정휴복(1529-1604)의 출토복식은⁴¹⁾ 목면 의복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견직물의 복식도 紋緞이나 紋紗 등의 고급직물보다는 면주로 되었다. 이는 임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용적인 면직물이 더욱 확산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조선 전기 출토복식들의 특징은 묘주의 생존시기가 이룰수록 주로 견직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목면은 걸옷의 안감이나 내의류 정도에 사용되었고, 시대가 늦어질수록 면직물이 단령, 직령, 답호 등의 걸옷류에 사용되었다. 또한 중종대 부터는 면사와 견사, 또는 면사와 견사의 교직으로 된 직물도 수 점 출토되어 면포의 변형도 이루어졌다.

15~16세기 출토 복식유물 중 목면 의복을 분석한 결과 조선전기에 생산된 면직물의 밀도와 직물 폭은 (표 3)과 같다. 면직물 나비는 가장 좁은 것이 31cm, 넓은 것은 39.5cm이며 33~35cm가 일반적이었다. 밀도는 8승 면포가 많았고, 가장 고운 것은 14승 면포였다.

33) 「단종실록」 권8, 단종 즉위년 10월 신유·임진·계사, 단종 3년 4월 정유.

34) 「한국복식」 제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3, pp.81-87.

35)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pp.318-371.

36) 「한국복식」 제16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8, pp.67-83.

37) 「한국복식」 제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1, pp.139-157.

38) 「한국복식」 제17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9, pp.45-47.

39) 「판결사 김흥조선생합장묘 발굴보고서」, 영주시, 1999, pp.134-

40) 「한국복식」 제6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8, pp.38-45.

41) 「한국복식」 제7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9, pp.129-158.

<표 2> 조선전기 유물중 목면의복의 출토

	이계윤 1431~1489	홍계강 1450년경?	김홍조 1461~1528	정 은 1481~1538	정응두 1508~1572	신언식 1518~1582	신여관 1530~1580	정휴복 1529~1604	김 함 1568~1598
면 주	철릭(6), 담호(1), 직령(2), 액주음(1) 너른바지(1)	단령(1), 철릭(1), 액주음(1), 직령(1), 저고리(2), 치마(2), 내친고(1)	직령(3), 철릭(3), 바지(2)	단령(1), 직령(1), 철릭(7), 액주음(1), 저고리(2) 치마(1), 바지류(1)	담호(5), 철릭(8), 액주음(1), 직령(1), 저고리(6), 배거리(1), 바지(1)	철릭(2), 저고리(1)	단령(1), 철릭(10), 액주름(1), 담호(3), 장옷(2), 직령(3), 저고리(2), 개당고(2), 사방모(1)	담호(1), 직령(3), 철릭(3), 액주음(2), 저고리(1)	직령(1), 저고리(1)
단									직령(1), 모자(1)
문 단		단령(1), 철릭(2), 치마(1)		방령의(1)	단령(1), 담호(1), 철릭(3), 방령(1), 저고리(8),		방령의(1)		
공 단		액주음(1), 직령,저고 리(1)					육합모(1)		
초			담호(1), 철릭(2)						
문 사		담호(1), 철릭(1)	담호(1)	저고리(1)	철릭(1)				
무 면		버선(2)	단령(1), 직령(2), 철릭(1), 바지(6)	저고리(1), 담호(1), 단령(1), 바지류(2)		단령(1), 액주음(1), 직령(1),	개당고(1)	단령(1), 직령(2), 액주음(1), 저고리(1), 바지(3), 버선(2), 허리띠(1)	직령(1), 저고리(1), 버선(1)
저 포	한삼(1)	단령(1), 담호(1), 철릭(1), 치마(1), 내친고(1)		단령(1), 지고리(1)		철릭(1)		철릭(1)	
파 포		내친고(1)	단령(2), 담호(3), 철릭(5)	저고리(1)				직령(1)	바지(1)
교 직			담호(1:苧綿) 단령(1:苧絲) 단령(2:絲綿), 담호(2:絲綿), 철릭(1:絲綿)						

<표 3> 조선전기 복식유물 중 면직물 분석

소 장 처	생 존 연 도	품 명		밑 도 (경사×위사/inch)	한 폭 나비(cm)	비 고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1400-1450? (16세기 초)	남양 홍씨	버선	남자용 41×49 여자용 47×45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1459년 추정	양천허씨	아청목면저고리 치마	56×50 안 :49×45		
월정사	1460	불복장품	저고리	안설 45×38 소매 49×46	34.5	
안동대 박물관	1461-1528	영주출토 김홍조	단령 1벌	53×58	38	
			직령 2벌	A: 56×50 B: 53×48	38 36	
			철릭	44×48	34	
			바지 6벌	49×43	35	
국립 민속박물관	1550-1600	광주출토 안동김씨	누비치마 버선	안 48×46 58×72	33.5	
전남대 박물관	1569년 추정	寶齒眞言文		56×41	39.5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1580년대 추정	과천출토 이 언응	액주옴포 : 2벌	A : 겉 59×68 안 54×56 B : 겉 59×77 안 59×77		
	1580년대 추정	청주한씨 (자부)	속곳 버선	A : 52×62 B : 52×58 36×36		
충북대 박물관	1530 -임란이전	청주출토 순 천김씨	백색 무명 요	34×35	31	
			숨 도시	29×32	35	
			숨누비바지	안 53×39	34	겉감의 경사가 목면과 명주실의 교직이다.
			이불	안 40×46	36	
			누비바지	겉 65×54 안 65×54	36	
충북대 박물관	1593 추정	중원출토 김위교	무명상누비창의	겉 58×67 안 53×46	35	
			누비속곳	안 67×64	35	
			명주속곳	안 50×39	35	
			누비 포	56×64	33.5	

소 장 처	생 존 연 도	품 명		밀 도 (경사×위사/Inch)	한 폭 나비(cm)	비 고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1568-1598 입란 당시	김합	누비직령포	49×57		
			숨 직령포	38×39		
			숨저고리	51×54 34×35		
			너른바지	47×53		
			버선	35×39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1529-1604	정휴복	겹저고리	51×43	38	입란 후 경제 가 어려울 때 이므로 출토 품 대부분이 무명
			관복	52×42	37	
			액주읍포	66×60	34.5	
			직령포	55×40		
			손직령포	74×63	37	
			바지	45×35	33.5	
			숨누비바지	51×54	34	
			숨버선	41×42		
			숨누비허리띠	48×44	33.5	
			숨이불	45×40	36.5	
은양민속 박물관	1559-1625	안동출토 김 윤	무명누비 저고리	54×63	37	
			무명숨버선	53×43		

출처 : 한국 민속 종합 조사 보고서(직물 공예편),민속박물관
관결사 김흥조 선생 합장묘 발굴 보고서, 영주시

V. 면직물의 대외 교역

면직물은 조선전기 대외교역에서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실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여진과의 교역에서 여진사신이 조선에 가져온 물품 중 중요한 것은 馬를 위시하여 土豹, 海靑, 鹿皮 등이며, 조선에서 그들에게 회사한 물품은 면포를 비롯하여 금, 은, 지물, 마포, 저포 등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포였다. 태조 2년(1393)에 여

진의 사신에게 면포의를 사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동왕 5년(1397)에는 면포 20필을 사여했고 바로 다음해에도 10명의 사신들에게 사여한 직물 품목에 綵紬絹, 綵苧布와 함께 면포도 있어 비록 그 양은 적지만 면포는 건국 초기부터 저포, 마포와 함께 외국에 보내졌던 중요 수출품목 중에 하나였다. 태종대에도 5년(1405) 토산물을 바친 수십명의 여진사신에게 면포 120필과 백저포 30필을 사여하였고, 두 달 후 여진의 두목에게도 면포와 북면의복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면포교역이 본격

적인 수출품이라기 보다는 토산물을 교환하는 정도 이었다.

그러나 세종대는 여진과의 목면교역이 본 궤도에 접어들어 명실공히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종 8년(1426)에 호조에서 야인들이 말을 바친 담례로 내려주는 물품은 큰 말에 대하여 상등은 면포 45필, 중등은 40필, 하등은 35필이며, 중질 말은 상등의 경우 30필, 중등은 25필, 하등은 20필, 작은 말은 상등이 15필 중등이 10필 하등은 6필을 지급하였다.⁴²⁾ 즉 여진으로부터 수입한 말에 대한 지불은 모두 면포에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품으로서 면포의 수요는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실정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 서로 원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왜인들이 면주, 면포, 저포, 곡물, 서적 등의 생활필수품을 얻으려는 욕구에서 일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왜인이 가장 선호하였던 것은 면포로서, 일본은 硫黃, 蘇木, 金銀, 胡椒 등을 바치고 막대한 양의 면포를 요구하였다. 조선 초기의 태조, 정종, 태종의 3대에 걸친 對日 무역은 남양에서 생산되는 물자의 수입 대가로 면주와 저마포를 주로 수출하였으나,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조선 면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출품목이 변화되었다.

즉 세종 즉위년(1418)에 유구·일본 등에서 유황, 소목 등을 납부한데 대하여, 회사품으로 면포 1,539필을 사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원년에는 412필을, 2년에는 2,280필을, 3년에는 5,430필을, 5년에는 2,640필을 보냈다.⁴³⁾ 이는 태종 10년(1410)에 토산물을 바친 왜인에게 흑마포를 사여 했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세종 20년(1438)에 대일교역

이 이루어지는 浦所에 면포를 직송하는 제도를 세웠으며⁴⁴⁾ 32년(1450) 1월에는 일본사신이 가지고 온 丹木과 銅鐵의 대가로 1만 필의 면포를 浦所에 직송했던 사례⁴⁵⁾들은 세종 연간 면직물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면직물의 생산능력은 여진, 명, 일본 등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수입한 것에 대한 모든 지불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미 세종 21년(1439)에 일본의 면포요구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뜻을 일본에 통고한 바가 있었다. 즉 면포의 대일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수요의 충족을 우선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은 얼마 안되어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하고 말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종 32년에도 일본에 보낼 1만여 필의 면포를 항구에 직송하였으며, 문종·단종·세조에 이르기까지 1회에 수천 필씩의 면포수출이 이루어졌다.

成宗대에 와서는 면포수출이 더욱 증가하여 1회에 만여 필 이상의 경우가 많아졌다. 성종 7년(1476) 11월 戶曹啓에 의하면 성종 6년의 일년 동안에 서울과 경상도에서 지급한 면포는 27,000필이었고, 7년에는 37,421필이었으며 17년경에는 倭人回奉이 연 500,000필 이상에 달하였으니⁴⁶⁾ 그 규모는 전시대에 비하여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성종 25년 8월에는 호조판서 노공필이 왜인들에게 줄 면포가 부족하니 그들이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였다.⁴⁷⁾

中宗대에도 대일무역 통제를 여러 차례 단행하였으나 끊임없이 國王使가 도래하여 면포교역을 간청하였고 그들은 공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역

42) 「세종실록」권 31, 세종 8년 정월 임인.

43) 김신, 「한국무역사」, 도서출판 석정, 1991, p.187.

44) 이현중, 「對日交易」 「韓國史論」권11, 국사편찬위원회, 1982, p.334.

45) 「세종실록」권 127, 세종 32년 윤정원 경신.

46) 김병하, 「이조전기의 직물생산과 대일 수출」, 「경희대학교 논문집」6권, 1969, p.715.

47) 「성종실록」권288, 성종 25년 3월 정미.

과 밀무역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종 18년(1523)에는 10만 필의 면포가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중종 20년(1525)에는 85,500필이, 37년(1542)에는 60,000필이, 38년(1543)에는 45,000필이 공무역 대가로 지급되었는데⁴⁸⁾ 이것은 면포가 대량 수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만을 든것이고 그 외에도 수천 필씩의 공무역 사례나 사무역에서 지급되었던 면직물까지 합하면 훨씬 많았음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중종 37년 4월 日本國王使 安心東堂이 취득한 면포는 쌓아서 산과 같았고 왜선 3-4척을 가지고는 수송이 어려워 대마도선까지 동원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이 무렵 일본인들이 공무역에 의하여 1년간 받은 면포만도 선박으로 60-70척이나 되었다고⁴⁹⁾ 하니 당시 면포의 대일 수출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세종 초기 면직물의 공무역이 시작될 때에 비하여 그 수출량이 수십 배에 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세종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면포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면업을 장려하였고 면업은 계속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면직물의 성장 발전은 양적인 측면에 국한되었고 그 이면에는 국가의 지나친 징포정책으로 말미암아 민간의 직포 기술이 열악해짐으로써 면직물이 추후화 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면직물 생산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퇴보를 초래하였다.

VI. 결 론

본 논문은 고려말 면종자가 도입된 후 조선전기 200년간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의 하나로 성장, 발전한 면직물이 것처럼 빠르게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 및 발전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면직물이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빠르게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면직물의 실용성 때문에 조선시대 의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직물로 사용되었다. 면직물은 견직물처럼 아름답지는 못하나 실용적이었다. 마직물이 여름철 의료로서, 견직물은 겨울철 의료로 적합한 데 반하여, 면직물은 사계절 통용할 수 있는 의료였기 때문에 서민층은 물론 상류층에서도 즐겨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내의·버선·침구로도 사용되어 국내수요는 실로 막대하였다.

둘째, 면직물은 조선 전기 여진, 명, 일본 등과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말, 향료, 비단, 염료와 같은 수입품에 대한 지불수단의 주종을 이루는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셋째, 면직물은 단순한 상품이라기 보다는 화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전기 면직물이 정착되고 성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다음의 3기로 구분되어진다.

제1기는 정착기로 태조 원년(1392)부터 태종 18년(1418)까지의 27년간이며, 면직물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씩 생산되어 의료로 사용되기 시작하며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주지한 단계이다.

제2기는 성장기로 세종 즉위년(1418)에서부터 세조까지의 50년간인데, 면직물은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 전라도 등의 남한 일대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의료로 생산되었다. 서민은 대부분 면포의 의복을 착용하는 반면 왕실과 班家에서는 아직도 견직물이 일상적이고, 부분적으로 면포 의복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또한 면직물은 상품의 가치척도가 되는 화폐의 역할을 시작한다.

제3기는 확장기로 예종 원년(1469)에서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기간이며, 일본과의 대외교역으로 면직물의 수요가 막대하여짐에 따라 남한지역의

48) 김병하, 위의 책, pp.718-719.

49) 위와 같음.

생산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서북지역까지 확대 생산 되는 기간이다. 출토 유물에 의하면 면직물이 반가의 의료로 확대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견직물과의 교직으로도 제직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다. 또한 면직물은 마포 대신 모든 상품의 가치척도가 되는 화폐로 통용된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확장기 동안 면직물 생산은 양적 발전은 하였으나 대일 수출 품목으로 과도하게 양의 면포 공급이 요구되었으므로, 정부는 면직물을 국가세입의 보충수단으로 촉진하였고 과중한 조세에 시달린 농민들은 면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보다는 저품질 상품으로 양적 충당하기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면직물은 생산기술 발전으로 연결되지는 못해서 품질 향상이나 생산시간 절감 등 기술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麗布 생산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후에도 열악화의 길을 밟아, 조선후기의 면업은 정체기로 돌입하였다.

후속연구로는 면업의 정체기로 불리우는 조선후기 면직물의 생산 및 사용실태를 정리하여 조선시대 전반적인 면직물 발달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성종실록
- 예종실록
- 중종실록
- 단종실록
-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 고승제, 한국사회경제사론, 일지사, 1990.
- 김신, 한국무역사, 도서출판 석정, 1991.
-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2.
- 이현종, 대일교역, 한국사론 권11, 국사편찬위원회, 1982.
- 임병하, 이조전기의 직물생산과 대일수출, 경희대학교논문집 6권, 1969.
- 정규용, 목화시험연구 80년, 농촌진흥청, 1988.
- 판결사김홍조선생장모 발굴보고서, 영주시, 1999.
- 한국민속종합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 한국사 권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국복식 제6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8.
- 한국복식 제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3.
- 한국복식 제16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98.